

# 도교육청, 교육행정 수행능력 높인다

### '2021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추진 계획' 추진... 방문컨설팅·행정실장 업무공백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2021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은 교육행정 업무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 업무담당자의 실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소규모학교 행정실장의 장기간 업무 공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컨설팅단은 총 5명으로 구성, 신규 공무원과 행정실장 업무공백 두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먼저 학교발령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은 발령후 2개월 전후로 1:1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를 통해 컨설팅 희망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행정실장 업무공백 지원은 소규모학교 행정실장의 1개월 이상 출산휴가나 장기 병가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와 사전협의 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학교회계 임시출납원 임명에 따라 업무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업무는 K-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법을 비롯해 예결산, 수입, 지출, 계약, 문서, 급여, 물품, 재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방문컨설팅 만족도는 99.6%, 행정실장 업무공백 지원 만족도는 100%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학교운영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서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 성료

### 전국 대학 최초 개최... 전주대 'HATCH STAR팀' 우승

전주대학교는 전국 대학 최초로 '제1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를 지난 25일~26일 이틀 동안 희망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Drone)분야의 인재양성과 확산을 위함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2017년부터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캠퍼스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전국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2020년 7월에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회(주송 회장)를 창설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대학 24개 팀이 참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실내 방역 및 참가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전주대의 HATCH STAR팀이 대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주송 단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에 참가해 준 전국 대학의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 가을에도 제2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를 잘 준비해 드론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김 교육감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익산시 선별진료소 방문 의료진에 격려·감사 전례

김승환 교육감이 선별진료소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오후 익산시보건소를 찾아 선별진료소 의료인 및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 검사에 있어 선별진료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큰 도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학교 관련 확진자 감염 의심자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빠른 협력이 학교내 감염을 최소화한다. 실제 2020년 말 기준 전북의 학생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이 11.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김 교육감은 "학교 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 감사드린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27일 오후 익산시보건소를 찾아 선별진료소 의료인 및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에 이어 정병익 부교육감은 군산보건소와 도청 보건의료과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업무담당자들을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북교육청, 인권 감수성 교육 강화

###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 교육 강사단 구성 등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문화·인권 감수성교육을 강화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시민을 기르고 다문화감수성 신장을 위해 문화인권감수성교육 강사단을 구성,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교수, 유·초·중·고교원,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 근무 이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강사단을 구성했다. 강사단은 유·초·중·고교원을 대상

으로 2시간씩,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1~2시간씩 문화·인권 감수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27일 합격자를 대상으로 Zoom을 통한 화상 연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다문화교육정책의 이해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의 실제1.2

▲2021년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 교육 강사단 활동 안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속적인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해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주비전대, 11년 연속 등록금 동결

전주비전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학년도부터 11년 연속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이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기당 인문사회계열 2,665,000원, 공학계열 2,987,500원, 자연계열 2,992,000원, 예체능계열 2,987,500원으로 2021학

년도 등록금을 책정,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홍순직 총장은 "10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함으로써 대학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크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2021학년도 순창교육설명회 개최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은 26일 3층 시청각실에서 2021학년도 순창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해 시행하고자 대면 및 비대면으로 운영됐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로도 방송됐다. 2020순창뮤지컬스타공연실황 '그림에도 우리는 노래하고' 식전영상 감상 후, 교육장 환영사, 2020년도 순창교육 주요 성과 보고, 2021년 순창교육계획 안내가 이어졌다. 순창교육지원청은 '꿈과 사랑으로 행복한 순창교육공동체'란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시책으로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18개),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4개),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4개),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6개),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3개)의 추진 내용을 안내해, 단위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서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구성원들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택수 교육장은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 대해 "교사는 학생들을 깊게 이해하고 교육해야 하며,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고 타인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